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김 경 희

김 은 하[†]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했을 때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74명을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으로 무선 할당시킨 후,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의 경우, 세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대상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세 조건에서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보다 높은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고, 외모불안을 보이는 내담자와 상담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 수준을 탐색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이해하게 도울 수 있는 등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자기대상화,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율곡관 508호,
Tel : 031-219-2787, E-mail : eunkim@ajou.ac.kr

현재 한국 사회는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 는 신념이 만연하며, 이로 인해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느끼거나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2015)의 설문에서 우리나라 성인남녀 1,500명 중 80% 이상이 외모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의 설문에서 85.6%가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아, 매력적인 외모는 중요한 가치이며 다양한 보상을 가져온다는 신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Bartky, 1990; Rhode, 2010; Wolf, 1991; Kahalon, Shnabel, & Becker, 2018). 이러한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차별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적 매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외모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인식에 의해 여성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다(박수향, 이혜주, 2009; 이현옥, 구양숙, 2006; 임인숙, 2004).

외모관리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으로(Kaiser, 1990),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김아날리아, 2006)라고 정의된다. 외모관리는 적절하게 수행되면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모관리를 통해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Aune & Aune, 1994) 매력적인 외모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도움을 주어 원활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하지만 지나친 외모관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외모관리 행동을 하고(김아날리아, 2006; 김윤, 2007), 외모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병숙, 백인선, 이은진, 박성희, 2007).

여성의 과도한 외모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높은 신체불만족과 낮은 신체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o & Striegel-Moore, 2002), 심한 경우, 섭식장애나 신체기형장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oll & Fredrickson, 1998; Phillips, 2004). 또한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이은희, 2007), 올바른 식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향숙, 2012; 이현옥, 박경애, 2000).

이러한 여성의 과도한 외모관리는 자기대상화 이론(Self-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과 관련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성적 대상화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감시하는 자기대상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pitzack, 1990). 자기대상화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대상화는 수치심(Stapley & Haviland, 1989), 외모와 안전에 대한 불안(Fredrickson & Roberts, 1997), 몰입 결여와 내적 신체 상태에 대한 몰인식(Harver, Katkin, & Bloch, 1993), 섭식장애

(Tylka & Hill, 2004; Greenleaf & McGreer, 2006)와 우울(Muehlenkamp & Saris-Baglama, 2002)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기대상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최근에는 자기대상화의 선행요인을 탐색하여 자기대상화를 미리 예방하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자기대상화의 선행요인으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Kozee, Tylka, Augustus-Hovath, & Denchik, 2007), 낮은 성희롱(Fairchild & Rudman, 2008), 몸매에 대한 부정적 대화(Gapinski, Brownell, & LaFrance, 2003), 외모 단서에 대한 환경적 노출(예. 외모관련 단어, Roberts & Gettman, 2004; 전신거울, Tiggemann & Boundy, 2008), 내현적 자기애(김재희, 서경현, 2018; 정다운, 박준호, 이민규, 2018), 부적응적 완벽주의(하효정, 2009) 그리고 대중매체(Calogero, Davis, & Thompson, 2005; Harper & Tiggemann,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자기대상화와 관련한 선행요인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개인내적 특성이나 특정 대인관계 상황, 혹은 대중매체 맥락 안에서의 자기대상화 경험만을 고려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Bowman과 Howard(1985)에 의하면, 가치와 이념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나 신념체계를 학습한다. 즉, 여성은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 기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Banaji, 1994)에 따르면, 사회 내 지배적인 신념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

화하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신념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내면화하여 그에 따라 행동한다(Jost, Pelham, & Carballo,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에 만연한 가치와 신념이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자기대상화 연구에서 신념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회적 신념요인 중 자기대상화 연구와 관련되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변인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를 꼽을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여성에 대한 애정과 호의라는 양가적인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Glick과 Fiske(1996)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포함되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는 지금까지의 인종차별주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감정을 의미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태도나 감정을 의미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주로 나타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의 성차별주의는 부드럽고 완화되어 온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미묘한 성차별(microaggression against women)과 비슷하게, 간접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성을 기존의 시스템에 순응하고 수용하게 만들며,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lick, Fiske, Mladinic, Saiz, Abram, Masser, & Annetie, 2000).

많은 여성들은 생활상에서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자주 노출된다. 반복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경험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분노와 우울(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자기은폐(Watson & Grotewiel, 2016)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게 한다(Calogero & Jost, 2011). 성적 대상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결국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제삼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자기대상화를 하게 된다(Spitzack, 1990).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여성의 자기대상화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며, 특히 자기대상화에 대한 영향력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Ford, Woodzicka, Petit, Richardson과 Lappi (2015)의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적 코미디(예. 여성들이 '아내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우는 장면을 묘사한 코미디)가 자기대상화를 촉진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중립적인 코미디(예. 남자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자신의 손가락 공포증을 소개하는 코미디)보다 성차별적 코미디가 여성의 자기대상화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미묘한 방식으로 성차별을 공고화하기 때문에,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낮은 신체 존중감(Franzoi, 2001), 높은 내면화

(Forbes, Collinsworth, Jobe, Braun, & Wise, 2007) 그리고 높은 신체불만족(Swami, Frederick, Aavik, Alcalay, Allik, Anderson, & Danel., 2010)과 같은 신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황인지(2017)의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 감시성을 통해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사하게,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Shepherd, Erchull, Rosener, Taubenberger, Queen과 McKee(2011)는 온정적 성차별적 행위를 목격했을 때와 목격하지 않았을 때의 자기대상화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온정적 성차별적 행위를 목격한 집단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목격하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Calogero와 Jost(2011)의 실험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에 노출된 조건의 여성 참여자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이나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태 자기대상화(state self-objectification),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고 반복적으로 평가하여 수치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더 외모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Swami, Coles, Wyrozumska, Wilson, Salem

과 Furnham(2010)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이상적 외모에 대한 추구하고 외모관리를 예측했다고 보고하였고, Bradley-Geist, Rivera와 Geringer(2015)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경험하는 사람을 목격하는 경우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목격한 여성 참여자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이나 통제조건보다 외모와 관련된 자존감과 더 많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eto, Ellemers, Piebinga와 Moya(2010)의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집단의 참여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한 내용보다 자신의 외모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도 외모와 관련된 사고를 점화시켜 여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미나(2018)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외모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직접적으로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김운(2007)은 자기대상화 수준이 높은 여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모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 Calogero, Pina, Park와 Rahemtulla(2010)와 Calogero, Pina와 Sutton(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대상화와 여성의 성형수술 추구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Johnson(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

대상화와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예. 구토, 제한적인 식사, 완화제 사용, 단식 등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외모관리행동)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Calogero와 Jost(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 노출이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하여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결과적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자기대상화를 유발하여 과도한 외모관리를 하게끔 만든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 외모관리의 관계에 대해 밝힌 선행 연구가 많은 반면에,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관련 연구의 경우에도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연구뿐이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목중성과 같은 응답편향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들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점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Bargh, Chen, & Burrows, 1996; Devine, 1989; Greenwald & Banaji, 1995; Kray, Thompson, & Galinsky, 2001; Steele, 1997; Wheeler & Petty, 2001)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에게 지지되거나 수용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점화는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개인이 명시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 또한 개인에게 지지되거나 수용되는 정도와 상관없이 이후의 다양한 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박상희, 김혜숙, 2007; Barreto et al., 2010; Fearther, 2004; Jost & Kay, 2005; Rudman & Heppen, 2003)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그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이후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한 집단,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한 집단, 통제 집단간에 자기대상화(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대상화를 보일 것이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외모관리 수행 의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74명의 여자 대학생들이 세 조건(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29명,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27명,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18명이었다. 수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2개의 설문지(남녀관계에 대한 문항 개발을 위한 설문지와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어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총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1명의 여성 연구자가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구자의 외모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에 비슷한 검은색 옷을 착용하였다. 실험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의 참여자가 동시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의 응답을 볼 수 없게 각자 벽을 보고 앉았다.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점화 과제를 실시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점화 과제를 수행한 후 자기대상화(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모든 설문지를 완료한 참여자들은 본 실험의 실제 목적에 대한 디브리핑을 받고 현금 5000원의 보상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19.97세($SD=1.61$)였고, 학년은 2학년이 35명(47.3%)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1학년(21명, 28.4%), 3학년(8명, 10.8%), 4학년 이상(10명, 13.5%) 순이었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사회과학부 49명(66.2%), 인문학부 12명(16.2%), 공학부 7명(9.5%), 의학부 4명(5.4%), 정보통신학부 2명(2.7%)이었다.

측정 도구

점화 과제

본 연구에서는 Calogero와 Jost(2011)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점화를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자로 하여금, 12개의 성차별주의 점화 문항을 읽고 그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6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동일한 문항을 2-3번 신중하게 읽고 그 문항들의 가독성, 즉, 각 문항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6점 척도(0=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얼마나 문항을 신중하게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금 본 문항에서 기억나는 단어(명사, 동사, 부사 포함)를 최소 10개 이상 적도록 하였다. 이 글쓰기는 Hauser, Ellsworth와 Gonzalez(2018)가 제안한 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IMC; attention check) 방법을 토대로 한 조작점검으로, 참여자들이 점화 과제를 주의 깊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조건별 점화 문항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는 한국형 다면 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척도의 문항들(예,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이 사용되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는 K-MSI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하위척도의 문항들(예, '신체상의 위협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한다.',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이 사용되었다. K-MSI는 안상수와 김혜숙 및 안미영(2005)이 Glick과 Fiske

(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후 안상수 등(2007)이 다시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통제 조건은, Calogero와 Jost(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Hoffman과 Hurst(1990)가 제시한 성-중립적(gender neutral) 특성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Hoffman과 Hurst(1990)의 성-중립적 단어 중 '창의적인', '자원이 많은', '요령 있는', '현실적인', '사려 깊은', '우호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책임감 있는', '양심적인', '신뢰할만한', '열정적인', '행복한' 등 총 12단어를 사용하였다.

자기대상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김완석과 유연재 및 박은아(2007)가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Korea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K-OBS)의 하위척도인 '신체 감시성(body surveillance, 여성이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과 '신체 수치심(body shame,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화된 신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래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 신념(control beliefs)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일관적으로 보고하는 반면에 통제신념은 두 변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김완석 등, 2007; Mckinely & Hyde, 1996).

이에 많은 경험적 연구들(김재희, 서경현, 2018; Fea & Brannon, 2006; Greenleaf, 2005; Muehlenkamp, Swanson, & Brausch, 2005)에서는 자기대상화의 주요개념을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라 정의하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자기대상화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두 요인만으로 자기대상화를 측정하였다.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은 각각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화 과제를 실시한 직후의 신체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지시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주시오'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 신체 감시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 신체 수치심은 .78, 본 연구에서는 신체 감시성 .72, 신체 수치심 .78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숙과 전지현(2017)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안나영, 2007; 이경숙, 2007; 왕야, 김용숙, 2007)을 토대로 개발한,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대한 수행의도("...을 하고 싶다")를 묻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대상화 척도 지시문과 동일하게 외모

관리 수행의도 척도 지시문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주시오'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이미숙과 전지현(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존감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역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ale; RESE)를 사용하였다. 자존감은 성차별주의, 자기대상화와 같은 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용두, 이기학, 2008; Fischer & Holz, 2007; Harter, 1993; Rollero, 2013)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타인과 신체를 비교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감을 느낀다(김완석 등, 2007; 손은정, 2008)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의 정도가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집단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SPSS Macro를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작점검을 위해, 점화 과제의 문항에서 참여자들이 기억한 단어의 개수 평균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요 요인들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조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존감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준거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점화 조건별로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대상화, 즉,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점화 과제에서 읽은 문항에

서 9개 이상의 단어를 기억한 참여자들이 점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비 연구에서 각 조건별로 4명의 참여자(심리 전공 대학원생)에게 동일한 과제를 실시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는 평균 10.33개,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는 평균 10.67개, 통제 조건에서는 평균 9.33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03명의 참여자 중 이 기준을 만족시킨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29명,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27명, 통제 조건 1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집단동질성 검증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조건,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 간에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연령, 학년, 자존감 수준에서 세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집단 간에 연령, 학년, 자존감 수준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에서의 집단동질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 집단동질성 검증

	HS조건 (N=29)	BS조건 (N=27)	통제조건 (N=18)	F(2,72)
	M (SD)	M (SD)	M (SD)	
연령	19.83 (1.58)	20.19 (1.52)	19.89 (1.84)	.369
학년	2.07 (0.84)	2.26 (1.13)	2.00 (1.19)	.395
자존감	3.62 (0.69)	3.50 (0.84)	3.54 (0.51)	.220

상관분석

본 연구의 준거변인인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r=.381, p<.01$), 신체 감시성과 외모관리 수행의도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418, p<.001$). 한편, 신체 수치심과 외모관리 수행 의도는 유의수준에 가까운 (marginal; 신뢰구간 90%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정적 상관을 보였다($r=.222, p<.10$).

조건 간 차이 분석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HS), 온정적 성차별

주의 조건(BS), 통제 조건 간에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경우, 세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체 감시성, $F(2,72)=9.940, p<.001$; 신체 수치심, $F(2,72)=5.756, p<.01$).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BS)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수준이 다른 두 조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HS)과 통제 조건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있어 세 조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나타났다($F(2,72)=2.2585, p<.10$).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BS)의 외모관리 수행의도 수준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HS)에 비해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조건은 다른 두 조건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상관분석

	1	2	3
1. 신체 감시성	-		
2. 신체 수치심	.381**	-	
3. 외모관리 수행의도	.418***	.222 ⁺	-

*** $p<.001$ ** $p<.01$, + $p<.10$

표 3. 집단별 차이 분석

	HS 조건	BS 조건	통제 조건	$F(2,71)$	Bonferroni
	$M (SD)$	$M (SD)$	$M (SD)$		
신체 감시성	3.19 (.56)	3.73 (.32)	3.38 (.44)	10.085***	BS >
신체 수치심	2.34 (.65)	2.86 (.61)	2.27 (.64)	6.462**	HS=통제
외모 관리 수행 의도	3.11 (.72)	3.47 (.49)	3.20 (.59)	2.585 ⁺	BS=통제 > HS=통제

*** $p<.001$ ** $p<.01$, + $p<.10$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분석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가 매개하지 확인하기 위해 Barron과 Kenny (1985)의 매개분석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은 1,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은 -1의 더미변인으로 코딩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71, t=4.402, p<.001$). 2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82, t= 2.187, p<.05$).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신체 감시성이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만($B=.523, t=3.050, p<.01$)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감시성이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시사한다.

이 후,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결과,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2,000개였고, 표 6에 제시한대로,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이 각각 .038와 .291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 감시성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4.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분석

단계	경로	β	t	R^2
1	성차별주의 점화 → 신체 감시성	.271	4.402***	.264
2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182	2.187*	.081
3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041	.448	.219
	신체 감시성 → 외모관리 수행의도	.523	3.050**	

*** $p<.001$ ** $p<.01$, * $p<.05$

표 5.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경로	β	t	R^2
1	성차별주의 점화 → 신체 수치심	.260	3.076**	.149
2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182	2.187*	.081
3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113	1.288	.148
	신체 수치심 → 외모관리 수행의도	.266	2.040*	

** $p<.01$, * $p<.05$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감시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외모관리 수행의도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60, t=3.076, p<.01$). 2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신체 수치심이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B=.266, t=2.040, p<.05$)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수치심이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시사한다.

이 후,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대로,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이 각각 .008과 .178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수치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외모관리 수행의도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표 6. 매개(간접) 효과 Bootstrapping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신체 감시성	.142	.061	.038 ~ .291
신체 수치심	.069	.042	.008 ~ .17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점화 실험을 실시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Calogero와 Jost(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참여자를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고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한 후, 조건 간에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에서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이 다른 두 조건이 비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켰을 때,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선행연구(안상수 등, 2007; 황인지, 2017; Calogero & Jost, 2011; 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Dumont, Sarlet, & Dardenne, 2010; Ford et al., 2015; Jezzini, 2013; Kilianski & Rudmen, 1998; Shepherd et al., 2011; Yoder & Lawrence, 2011)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로 쉽게 인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

역할 행동과 규범을 유지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에서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보다 유의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외모관리 수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보다 외모관리 행동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미나, 2018; Barreto, Ellemers, Cihangir, & Stroebe, 2009; Calogero & Jost, 2011; Forbes et al., 2007; Swami, Coles et al., 2010)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먼저,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도의 안면타당도가 높아 참가자가 척도의 의도를 인식하였거나 이 척도가 자기대상화 척도보다 나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점화의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태도가 늘 수행의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Seyfi, Poudel, Yasuoka, Otsuka & Jimba, 2013), 높은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늘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진다고 해도 외모관리행동을 촉진하는 다른 내외적 요인(예. 자존감, 경제

적 능력)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대한 결과가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수행의도와 관련하여 통제 조건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조건에서 실시한 점화 과제에의 문항 중 해외에서는 성-중립적 단어로 분류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 우호적인, 사려 깊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통제 조건에서 어느 정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도를 바꾸거나 통제 조건의 점화 과제 문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에서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가 상정되었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점화되었을 때,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모관리 수행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윤, 2007; Calogero & Jost, 2011; Fredirksion & Roberts, 1997; Langton, 2009; Roberts & Gettman, 2004)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자기대상화라는 태도 변인이 변화함으로써 외모관리 수행의도라는 행동과 관련된 변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외모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나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시, 내담자가 어떠

한 성차별 경험 그리고 성차별주의를 내면화 하였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주로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변인(박정임, 유제민, 김청송, 2016), 신체불만족, 외모에 대한 수용과 같은 인지적 변인(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민주, 손은정, 2015), 그리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인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변인(장혜경, 손정남, 2014) 등에 주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더불어, 성차별주의와 같은 신념적 변인 또한 탐색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내담자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내담자와 성차별 경험 그리고 성차별주의에 대해 다룰 시에는 내담자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성차별주의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Kilianski & Rudman, 1998)을 고려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차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SI의 문항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많이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이로 인해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심이 높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차별 경험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높은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비난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내담자가 높은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심으로 인해 과도한 외모관리 행동을 하

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좀 더 건강한 관리방법에 대해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그 대상이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다른 지역의 여자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용한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도와 통제 조건의 점화 과제 문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Calogero와 Jost(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즉,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점화 과제를 실시한 후 다음 주에 해야 하는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 중 외모관리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외모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나 계획을 측정하는 태도변인으로 실제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변인이 아니므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통제 조건의 점화과제와 관련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중립적 특성들로 문항을 구성하거나 선행연구(Rudman & Heppen, 2003)와 같이 꽃이나 식물과 같은 완전한 중립자극의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을 때 양가적 성차

별주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의 분명한 차이가 관찰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을 측정할 때 역균형화를 하지 않아 접화의 효과가 뒤에 배치된 척도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준거변인을 역균형화하여 접화의 효과를 통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lick 등(1996)이 개발하고 안상수 등(2005)이 변안·타당화한 척도를 안상수 등(2007)이 보완한 K-MSI의 문항을 사용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구분하여 접화하였는데, K-MSI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분된 내용 중 일부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현실을 보다 더 반영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의 외모불만족과 과도한 외모관리행동(예. 다이어트, 성형수술)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이미숙, 전지현, 2017; 정윤경, 2003),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화 실험을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성차별주의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자대학생의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그리고 외모관리 수행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연구

방향, 개입 방안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최근 남성들도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홍금희, 2007)을 고려할 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아날리아 (2006).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외모도구성 척도(BVI-SI-A)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549-568.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 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서경현 (2018). 성인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07-220.
- 김태홍, 안상수, 박선영, 김난주 (2011). 국격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1-254.
- 김향숙 (2012).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김혜숙 (2007).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에게 대한 노출이 사회의 공정

- 성과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400-401.
- 박수향, 이해주 (2009). 여성의 외모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757-768.
-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박정임, 유제민, 김청송 (2016). 외모를 강조하는 대중매체에의 과다노출이 여자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7), 167-187.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이경숙 (2007). 성인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 (2018).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수도권 여고생들의 외모관리에 미치는 효과. 시민교육연구, 50(4), 145-174.
- 이미숙, 전지현 (2017).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9(1), 147-162.
- 이민주, 손은정 (2015). 외모수용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99-218.
-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49-58.
-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연구-성형수술, 비만체형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113-122.
- 이현옥, 박경애 (2000). 여성소비자의 외모만족도: 외모유형과 외모의식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7), 93-102.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 임인숙 (2004). 외모차별 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한국여성학, 20(1), 95-122.
- 임인숙 (2015). 외모차별 사회의 외모불안감과 노화불안감. 한국사회학, 49(4), 199-233.
- 왕야, 김용숙 (2007).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45-157.
- 장혜경, 손정남 (2014).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및 우울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1(3), 235-242.
- 정다운, 박준호, 이민규 (2018). 여자 대학생의

- 내현적 자기애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5), 317-345.
- 정윤경 (2003). 일부 여대생의 체중 조절행위 예측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효정 (2009).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대상화가 신체와 관련한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겔립조사 (2015. 5. 21).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656)
- 황인지 (2017). 여대생의 물질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신체수치심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금희 (2007). 외모지상주의 시대의 남자대학생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여성연구논집*, 18, 187-214.
- 홍병숙, 백인선, 이은진, 박성희 (2007). 미디어 및 외모관심도가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1(4), 624-632.
- Aune, R. K., & Aune, K. S.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tu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2), 258-272.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
- Barreto, M., Ellemers, N., Cihangir, S., & Stroebe, K. (2009). *The self-fulfilling effects of contemporary sexism: How it affects women's well-being and behavior*. na.
- Barreto, M., Ellemers, N., Piebinga, L., & Moya, M. (2010). How nice of us and how dumb of me: The effect of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on women's task and relational self-descriptions. *Sex Roles*, 62(7-8), 532-544.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ky, S. L. (1990). Toward a phenomenology of feminist consciousness.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11-21.
- Bowman, P. J., & Howard, C. (1985). Race-related socializ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f Black youth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2), 134-141.
- Bradley-Geist, J. C., Rivera, I., & Geringer, S. D. (2015). The collateral damage of ambient sexism: Observing sexism impacts bystander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s. *Sex Roles*, 73(1-2), 29-42.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2(1-2), 43-50.
- Calogero, R. M., & Jost, J. T. (2011). Self-subjugation among women: exposure to sexist ideology, self-objectification, and the protective function of the need to avoid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211.

- Calogero, R. M., Pina, A., Park, L. E., & Rahemtulla, Z. (2010). Objectification theory predicts college women's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Sex Roles, 63*(1-2), 32-41.
- Calogero, R. M., Pina, A., & Sutton, R. M. (2014). Cutting words: Priming self-objectification increases women's intention to pursue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2), 197-207.
- Dardenne, B., Dumont, M., & Bollier, T.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Fairchild, K., & Rudman, L. A. (2008). Everyday stranger harassment and women's objectific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21*(3), 338-357.
- Fea, C. J., & Brannon, L. A. (2006). Self-objectification and compliment type: Effects on negative mood. *Body image, 3*(2), 183-188.
- Feather, N. T. (2004). Value correlate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gender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 3-12.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
- Forbes, G. B., Collinsworth, L. L., Jobe, R. L., Braun, K. D., & Wise, L. M. (2007). Sexism, hostility toward women, and endorsement of beauty ideals and practices: Are beauty ideals associated with oppressive beliefs?. *Sex Roles, 56*(5-6), 265-273.
- Ford, T. E., Woodzicka, J. A., Petit, W. E., Richardson, K., & Lappi, S. K. (2015). Sexist humor as a trigger of state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Humor, 28*(2), 253-269.
- Franko, D. L., & Striegel-Moore, R. H. (2002). The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Are the differences Black and Whit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5), 975-983.
- Franzoi, S. L. (2001). Is female body esteem shaped by benevolent sexism?. *Sex roles, 44*(3-4), 177-188.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Gapinski, K. D., Brownell, K. D., & LaFrance, M. (2003). Body objectification and "fat talk": Effects on emotion, motivation, and cognitive performance. *Sex roles, 48*(9-10), 377-388.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 Abrams, D., Masser, B., ... & Annetie, B.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
- Greenleaf, C. (2005). Self-objectification among physically active women. *Sex roles, 52*(1-2), 51-62.
- Greenleaf, C., & McGreer, R. (2006).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nd self-objectification among physically active and sedentar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3), 187-198.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
- Harper, B., & Tiggemann, M. (2008). The effect of thin ideal media images on women's self-objectification, mood, and body image. *Sex roles, 58*(9-10), 649-657.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elf-esteem* (pp. 87-116). Springer, Boston, MA.
- Hauser, D. J., Ellsworth, P. C., & Gonzalez, R. (2018). Are manipulation checks necessary?. *Frontiers in psychology, 9*.
- Harver, A., Katkin, E. S., & Bloch, E. (1993). Signal detection outcomes on heartbeat and respiratory resistance detection tasks in male and female subjects. *Psychophysiology, 30*(3), 223-230.
- Hoffman, C., & Hurst, N. (1990). Gender stereotypes: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197.
- Jezzini, A. T. (2013). *Acculturation, marianismo gender role, and ambivalent sexism in predicting depression in Latinas*.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Jost, J. T., & Kay, A. C.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98.
- Jost, J. T., Pelham, B. W., & Carvallo, M. R. (2002). Non-conscious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Implicit and behavioral preferences for higher status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6), 586-602.
- Kahalon, R., Shnabel, N., & Becker, J. C. (2018). Positive stereotypes, negative outcomes: Reminders of the positive components of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impair performance in counter stereotypical task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2), 482-502.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 Kilianski, S. E., & Rudman, L. A. (1998). Wanting it both ways: Do women approve of benevolent sexism?. *Sex roles, 39*(5-6), 333-352.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 Kray, L. J., Thompson, L., & Galinsky, A. (2001).

- Battle of the sexes: gender stereotype confirmation and reactance in negot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42.
- Langton, R. (2009).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essays on pornography and object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 & Johnson, K. K. (2009). Factors related to engagement in risk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7(3), 163-178.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uehlenkamp, J. J., & Saris-Baglama, R. N. (2002). Self-objectification and its psychological outcomes for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71-379.
- Muehlenkamp, J. J., Swanson, J. D., & Brausch, A. M. (2005). Self-objectification, risk taking, and self-harm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1), 24-32.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 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Phillips, K. A. (2004). Psychosis in body dysmorphic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8(1), 63-7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hode, D. L. (2010). *The beauty bias: The injustice of appearance in life 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 T. A., & Gettman, J. Y. (2004). Mere expo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of priming a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1(1-2), 17-27.
- Rollero, C. (2013). Men and women facing objectification: The effects of media models on well-being, self-esteem and ambivalent sexism. *Revista de Psicologia Social*, 28(3), 373-382.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SES).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Rudman, L. A., & Heppen, J. B. (2003). Implicit romantic fantasies and women's interest in personal power: A glass slipper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1), 1357-1370.
- Seyfi, F., Poudel, K., Yasuoka, J., Otsuka, K., & Jimba, M. (2013).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ollege students in Turkey: Influence of help-seeking. *BMC Research Notes*, 6, 519-530.
- Shepherd, M., Erchull, M. J., Rosner, A., Taubenberger, L., Queen, E. F., & McKee, J. (2011). "I'll get that for you":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volent sexism and body self-perceptions. *Sex Roles*, 64(1-2), 1-8.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apley, J. C., & Haviland, J. M. (1989). Beyond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in normal adolescents' emotional experiences. *Sex roles*, 20(5-6), 295-308.

- Steele,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identity and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ist, 52*(6), 613.
- Swami, V., Coles, R., Wyrozumska, K., Wilson, E., Salem, N., & Furnham, A. (2010). Oppressive beliefs at play: Associations among beauty ideals and practic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xism, objectification of others, and media exposu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365-379.
- Swami, V., Frederick, D. A., Aavik, T., Alcalay, L., Allik, J., Anderson, D., ... & Danel, D. (2010). The attractive female body weight and female body dissatisfaction in 26 countries across 10 world regions: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Body Project I.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3), 309-325.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Tiggemann, M., & Boundy, M. (2008). Effect of environment and appearance compliment on college women's self-objectification, mood, body shame, and cognitive performa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4), 399-405.
- Tylka, T. L., & Hill, M. S. (2004).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relates to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Sex roles, 51*(11-12), 719-730.
- Watson, L. B., & Grotewiel, M. (2016). The protective role of commitment to soci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xist experiences and self-silencing. *Sex Roles, 75*(3-4), 139-150.
- Wheeler, S. C., & Petty, R. E. (2001). The effects of stereotype activation on behavior: a review of possible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27*(6), 797.
- Wolf, N. (1991). *The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used against women*. Random House.
- Yoder, J. D., & Lawrence, C. L. (2011). Are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ed rumination explained by Women's stereotyping?. *Sex roles, 65*(1-2), 94-101.
- 1차원고접수 : 2019. 10. 20.
심사통과접수 : 2019. 12. 19.
최종원고접수 : 2019. 12. 29.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on Self-Objectifica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f College Women Student: With an Emphasis on Benevolent Sexism

Kim Kyung Hee

Kim Eun-Ha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studied female college students to see how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effect self-objectification(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and to examine whether self-objectification(body surveillance, body shame) mediates between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A total of one hundred and three participants completed a experiment, and randomly assigned to three conditions: hostile sexism conditio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control condition. Due to the missing values, extreme measures and manipulation checks, seventy-four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First, body surveillance/body sha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onditions and participants i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hostile sexism condition and control condition.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n the other hand, showed margin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onditions, and participants i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was margin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hostile sexism condition, but control condition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two conditions. Second, body surveillance/body shame mediated between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proposals for the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Also, the implication of counseling that when counseling client who show anxiety about her appearance, counselor help client exploring the level of ambivalent sexism and self-objectifi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Ambivalent Sexism,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ppearance Management*